

## 금속 현장문화패, 총파업 조직 위해 연습 구슬땀

노조 전국현장문화패 수련회 열어 ... 문화활동가 마음 건강 상태진단도 시행

금속노조 지부, 지회 현장문화패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 모여 2022년 금속노조 전국현장문화패 수련회를 열었다.

노조 문화활동가들은 수련회에서 지난해 문화패 활동을 돌아본 뒤, 총파업 등 투쟁 조직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결의하고 매체별 연습에 구슬땀을 흘렸다.

노조 전국현장문화패 수련회는 노조 문화패 활동을 공유하고, 현장문화패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2018년부터 매해 열고 있다. 이날 수련회에 지부, 지회 현장문화패와 노조 밖 문화활동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수련회에 찾아와 축하와 고마움의 말을 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7월에 실제로 공장을 멈추는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정세를 뚫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결심” 이라면서 “20만 총파업 성사를 위해 현장문화패 동지들이 힘껏 뛰어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했다.

전국현장문화패 수련회 첫 순서는 현대자동차지부 울산 풍물패장 신중



재 조합원이 진행하는 난장트리 ‘모듬북’ 배우기였다.

두 번째 순서를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 이 맡아 문화패 활동 인식과 마음 건강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두리공감은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 심리 문제를 진단하고 회복을 돕는 단체다. 개인 심리 상담, 소통과 상호이해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설문 결과 목표와 동기, 몰입, 만족 부분에서 25점 만점에 모두 20점이 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지원환경과 지지체계와 관련한 답변에서 각각 16점, 18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노조 문화활동가들은 문화패 활동의 목표와 동기에 관한 인식이 높고, 자신의 활동에 집중하며 성취감이 높았다. 반면 문화패 활동이 노

조 안에서 적절한 지원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화패 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에 관한 합당한 조치가 없고, 연습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첫날 마지막 순서로 노래패, 몸짓패, 풍물패 등 매체별로 분반 교육을 했다. 노래패는 ‘선을 넘는다’(글·곡 노래선언), 몸짓패는 ‘사람답게 살아’(글·곡 박현욱), 풍물패는 ‘세상을 바꾸자’(글·곡 꽃다지)에 맞춰 매체 별 연습을 했다.

노조 문화활동가들은 “코로나 19로 많이 모이지 못해 안타깝다” 라면서 “노조, 지부, 지회가 조직 차원에서 독려해 문화활동가 수련회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라고 평했다.

수련회를 준비한 백일자 금속노조 문화국장도 “문화패 동지들을 위해 지부와 함께 노조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노동자문화와 문화패 활동에 관한 간부들의 인식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활동하겠다” 라며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문화패 동지들에게는 늘 고맙다” 라고 밝혔다.

# “하청노동자 살아야 한국 조선업 산다”

조선하청 세 지회, 윤석열 인수위 의견서 전달 ... 다단계 하도급 금지·삭감 임금 회복 등 요구

울산, 목포, 거제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들이 상경해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 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등 세 지회 노동자들은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윤석열에게 조선업 재도약 전략을 제대로 만들고, 하청노동자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조선하청 세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만큼 보상을 하지 않는 저임금 구조와 중대재해가 줄을 잇고 있다” 라면서 “불황기에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젊은 노동자는 조선소를 기피한다” 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선소 원청들은 조선업 경기 침체를 핑계로 지난 5년 동안 7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해고했다. 조선소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건설, 플랜트 현장으로 떠났다. 살아남은 하청노동자는 30%가 넘는 강제 임금 삭감을 견뎌야 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 ▲체불임금 사용자 엄벌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연대책임 법제화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노조 참여 보장 ▲원청-하청노조 단체교섭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3차 총궐기 결의대회’ 를 열었다. 점심식사 후 쉬는 시간을 쪼개 결의대회에 참석한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삭감한 임금을 최소 30% 올리지 않으면 떠난 노동자는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는다” 라며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대회 투쟁사에서 “동지들이 요구하는 임금 30% 인상은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다” 라며 “우리가 당당하게 주인답게 노동조

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조선업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수주대박’ 이라고 할 만큼 일거리가 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 ‘인력보릿고개’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일할 노동자가 모자라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오랜 조선 불황기에 고통을 맞으며 버틴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끝까지 외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조선산업 부활을 공약했지만, 숙련노동에 의존하는 조선업 생산방식과 무관한 ‘저탄소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주확대·연구개발 지원, 조선업 스마트 야드와 친환경 선박 제조 클러스터 구축’ 등 기업 지원대책만 내놓고 있다.